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농민연합 상임대표

# 윤요근



“농업이 적잖이 어렵지만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성공이 가능하다. 돈이 되지 않는 농업은 살아있는 농업이 아니다.” 에너지가 넘쳤다. 정열과 열정으로 풍만했다. 달변에 체구만큼이나 강함까지. 난마처럼 얽힌 이런 저런 현안에 대해서도 공감이가는 맥을 짚어낸다. 이삼중고에 신음하는 농업인의 처지가 가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야말로 안성맞춤 단체장이다. 수신(修身)과 제가(齊家)하지 못한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는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라 말한다. 얼마 전 농민연합 상임대표까지 맡게 된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윤요근(50) 회장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농민연합 상임대표도 맡게 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320만 농업인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조타수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다짐과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농민연합 상임대표를 다시 맡으면서 솔직히 더욱 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어온 쌀 문제, 농협개혁 문제 등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넘어야 할 산이 많기에 그렇습니다. 올 한해 크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는 2가지입니다.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로는 정부나 농협을 위한 농협개혁이 아닌 조합원 중심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산에서 판매까지 농업인 스스로가 중심에 서서 아이디어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생산자이자 소비자임을 각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산지소 운동의 확대로 지역농산물의 소비가 지역중심으로 이루어 질

또한 심각한 쌀 문제 해결을 위해 쌀 생산비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의 법제화, 쌀 목표가격 인상 등의 활동을 통해 쌀이 재평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과제로는 FTA 등 개방화에 대한 대책마련과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개발위주의 농지정책의 폐기, 농가부채 해결, 농업생산비 대책마련, 농업재해보상제도 마련 등 농민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진력 할 것입니다.

최근 기후온난화와 식량무기화, 물 부족 등 제기되는 일련의 글로벌 위기와 우리 농업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는데요. 국내외적으로 이심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할로와 농업선진화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면?

경쟁과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어느덧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하지만 언제나 농업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경쟁과 효율의 차원이 아닌 전 국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인정하고 미래의 핵심동력인 인력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인들 스스로 자립역량을 확충하고 중소형 농업구조하에서 협업구조로 농가산지 조직화를 통하여 생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도 농업계 최대이슈는 쌀 가격 하락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쌀 소비촉진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쌀 소비 대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일부 보도에 의하면 2010년 상반기 쌀 전체 재고는 12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더욱 심각한 쌀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가공시장 활성화, 소비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근본적 쌀 재고 해결이나 생산비 보장의 뚜렷한 대안을 내 놓고 있지 못합니다. 쌀 소비 대책으로는 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통한 우리농산물 소비에 있다고 봅니다. 젊은 층이라면,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소비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학교급식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쌀 현물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쌀 소비촉진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 해결책으로 차관형식의 인도적 대북 쌀 지원 재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아도는 쌀을 완전하게 시장과 격리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7%이지만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입니다.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의 백년대계가 절실히 요구되는데요. 안정적 먹거리 공급에 필수농자재인 작물보호제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

정책기조가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등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 농약을 사용하면 무조건 위험에 노출된 농산물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홍보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충청도를 중심으로 꽃매미 병해충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서 알에 대한 방제의 뚜렷한 대책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례가 작물보호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새로운 변종의 병해충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수도작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종류의 작목 생산이 늘어나는 시점으로 볼 때 생산성 확대를 위한 작물보호제의 역할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농촌노동력 부족과 노동력의 고령화 및 여성화로 인하여 병해충 및 잡초방제의 개념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적기적소에 병해충을 해결할 수 있는 작물보호제의 역할은 두말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현대 영농과 농업인에게 있어 작물보호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농업인과 작물보호제 산업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해안(慧眼) 주신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기조가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등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 농약을 사용하면 무조건 위험에 노출된 농산물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홍보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물보호제의 경우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은 그만큼의 홍보부족이나 무지의 소치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작물보호제 산업계가 농업인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침 등 판매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통해 상생의 기초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창간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협회 발행 「생활과 농약」誌 제작진과 이 책을 접하는 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농약의 과다사용 및 안전관리 미흡으로 피해가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에 창간 30주년을 맞이한 「생활과 농약」誌가 보다 더 안전한 작물보호제 사용 지침서가 되어 주길 바라며 농업인을 대표해서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Y